

2020년 3월 22일[제 40권 12호]

TwoWings 1500 vision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오전 9: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15장	예배로의 부름 찬양 그 사랑	노피어 찬양단 찬양 우리 주 하나님
고백과 헌신	교독문 12. 시편 19편 신앙고백 찬송 210장 기도 이해경 권사	기도 김화심 권사 성도의 교제	기도 김은숙 간사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사도행전 16장 22~25절 (신약 215) 불의와 함께 걸어가기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393장 축도 담임목사	봉헌 예수 이름 높이세 축도 담임목사	봉헌 그 크신 사랑 축도 담임목사 나눔과 교제

공동체예배 15:00	3월 예배위원	
가정 예배	[다음주 기도] 전통예배 이선희 집사 축제예배 강미령 권사 젊은예배 한상익 형제	[봉헌] 전통예배 김문숙 김영미 축제예배 김성국 장성운 김미정 김화심 최현순 젊은예배 박진경 최민지
수요기도회 19:30	4월 봉헌위원	
가정 예배	[전통예배] 김영숙 박선희	[축제예배] 박용수 임경진 김영미 김은희 남순자



오늘의 말씀

불의와 함께 걸어가기

[사도행전 16장 22~25절]

첫째, 하나님이 ()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 있습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도우시는 분

[에스라 6:8-22]

W

WELCOME

환 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W

WORD

말 씀

.....
지금까지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쁘고 반가웠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 대학 합격
- 시험 합격
- 취업 합격
- 제대
- 완치 판정
- 임신과 출산
- 임금 인상
- 복권 당첨
- 주택 구입
- 자동차 구입
- 사랑 고백
- 기타

Q

QUESTIONS

질문

1.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는 어떤 내용입니까?(8-10절) 만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11-12절)
2. 다리오의 명령의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14-15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16절) 또 유다 민족이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19, 22절)
3. 유다 민족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 다리오의 명령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일하는 사람들의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라(8절).
 - 제물과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9절).
 -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원하며 방해하지 말라(10절).
 - 방해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벌을 내리라(11절).
 - 방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신속하게 벌을 내릴 것이다(12절).
 - 기타
4. 유다 민족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했던 경험에 관해 나눠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W

WITNESS

증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간증나눔

훈련을 통한 변화

- 청년 B-3목장 김민지 자매 -

안녕하세요. 청년 B-3 목장 김민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청소년 양육훈련을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고등학교 3학년을 거치며 수레바퀴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었으나 점점 지쳐갔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저 왜 날 돕지 않으시냐고 화만 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청년공동체에 들와 지난 학기에 양육반을 권유 받았습니다. 양육은 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고 처음 경험하는 대학생생활을 즐기고 싶었기에 저는 양육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장모임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점차 신앙이 회복되어 반 의무적으로 나가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양육반에 대해 큰 기대는 없지만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양육반을 듣기로 결심하면서 회복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복캠프를 통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깊이 느

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잊고 살았던 제 삶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 올랐고 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없이 양육반을 신청했는데 회복캠프를 다녀온 뒤에 양육을 받으며 변화할 내 모습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회복캠프를 거절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후회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회복캠프에 참여했다더라면 지금은 더 변화된 나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복캠프를 통해 기대감을 얻고 양육반에서 수레바퀴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통해 교회에 소속감이 생기고 더욱 교회가 편안해지기를,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양육반을 통해 교회와 청년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수레바퀴의 삶 또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했던 기도가 회복되며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앞서가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로 소리 내어 고백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양육반을 시작하며 금요철야기도회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금요철야기도회를 찾았고 힘들 때에는 세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와 성령충만을 사모하며 금요철야기도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금요일마다 금요철야기도회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약속이 생기더라도 금요일 아홉시 반이 되면 교회로 향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양육반과 함께 진행된 행복모임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저를 변화시켜가셨습니다. 저는 행복모임을 통해 섬김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베스트가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며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전도의 자리를 기뻐했던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전도에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양육반이 서로 섬기고 도우며 마지막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양육은 저를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님께 더욱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시켰습니다. 양육반을 받고 싶지 않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양육의 기쁨을 누리며 더

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마치며 주님께서 다음에 있을 제자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양육반보다 더 큰 은혜와 변화를 주실 것을 믿기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목장식구들이 저에게 계속 양육반을 권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아직 양육반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양육반을 적극적으로 권해주고 싶습니다. 처음에 결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양육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나주십니다. 양육의 자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더 큰 은혜와 변화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양육반으로 이끌어 준 목장식구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목양해주시는 영적 아버지인 담임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양육의 자리로 이끄셔서 변화시켜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가장 크고 튼튼한 나라

대구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하고 의료진들이 지원하여 대구로 가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발 벗고 나서서 짐을 나눠지는 국민이 있다면 결코 작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자리를 피하고 숨는 사람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나서서 짐을 서로 나눠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코 쉽게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일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 교회의 직분,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직업이 돈버는 도구, 먹고 사는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됴됨이를 표출하는 현장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표현하는 사람은 삶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어부라고 모두

똑같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라고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업, 직분을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 사람의 됴됨이가 표현됩니다.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후보자의 사진을 멋지게 만들어서 걸어 놓았다고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무, 그가 맡은 직분을 어떻게 해 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토가 넓고 지하자원이 풍부해야 튼튼한 나라가 아니라 직분이나 직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야 큰 나라요 튼튼한 강국인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탁월한 일꾼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여 300명이 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잠수부들이 필요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도 능수능란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잠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곳에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나 노래 잘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영적 능력이 탁월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꾼은 언제

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님은 늘 칭찬받고 환영받는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때맞고 오해 받으며 손가락질 받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평이나 원망없이 자원하여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한없는 영광의 길이요 영적인 능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6)

영혼을 사랑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임직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식이 마쳐갈 무렵 신임 장로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교회의 핵심가치인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임직식을 여러 곳 참석해 보았지만 교회의 핵심가치를 알고 말하는 사람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사람 참 잘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동안 귀한 일꾼이 될 것 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일꾼이 되어 현금 많이 하면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권력자가 와서 큰 소리 치면 힘이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잘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짓지 않는 개를 무엇에 쓰겠습니까? 창고에 쥐가 난장판을 벌이는데도 잡지 않는 고양이, 새벽이 되었는데도 울지 않는 장닭.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일꾼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을 잃고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금주 도고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성령충만하여 2020년을 힘있게 이끄시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비전과 영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 목사님에게 영적 담대함과 민감함을 허락 하시어 언제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2. 봄 사역을 위해서

- 봄사역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 행복모임이 성령충만함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봄사역이 힘있게 시작되게 하소서.

3.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 인도에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인 비자를 전부 무효화 처리를 하게되었고, 다시 해외를 나가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선교사들이 관광비자인 상황으로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발급되도록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한상의 형제

- 직장에서 진행하는 실험실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확정되어 연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모든 교회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소서.

2. 김영일 집사

-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새가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섬김이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과 돌봄으로 지속적으로 새가족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금주의 감사

- 환란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온세계 위에 드러나게 하소서.

- 예배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소서.

-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장을 이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소서.

- 이직이 원활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복음을 기억하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 소식

이번주 소식

1.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6,9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3번 (오전 10시 30분, 오후 4시, 저녁 9시), 6개의 기도제목(교회와 비전을 위해서,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봉사역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전도사역과 도고기도 사역을 위해서, 이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으로 9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369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이번주 공동체 예배와 수요기도회도 가정에 배로 모입니다.
4. 새 봄 사역이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시간 동안 더욱 더 세밀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여 힘있게 새봄 사역이 시작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역국에서는 사역을 정비하셔서 봄 사역에 총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례를 위한 교육이 3월 31일(화)부터 4월 3일(금)까지 진행이 됩니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 등록 후 6개월 이상된 자로 만 14세 이상
 세례 - 학습 받은 자
 유아세례 - 만2세 이하 어린이로 부모가 세례를 받은 자
 입교 - 유아세례 받은 자로 만 17세 이상
6. 2020 여름 두날개 필리핀 아웃리치가 7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진행이 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4월 30일로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유한나 팀장)
7. 1/4분기 사무감사를 위해 각 기관은 장부를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봉사

[주방봉사]
주방사역관리 담당 : 정일숙, 황귀순 권사

[청소]
본당 : 여성C-4목장(이은숙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1목장(양나운 목자)
2층 : 여성B-4목장(임영미 목자)
3층 : 여성A-3목장(한미라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새가족 섬김이

노경자 집사 (섬김이 : 강애진 집사)
홍창의 형제 (섬김이 : 김민수 형제)
박순례 집사 (섬김이 : 장미경 집사)
조광래 형제 (섬김이 : 한상익 간사)

우리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전통예배	주일 오전 9시
축제예배	주일 오전 11시
젊은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공동체예배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시 30분
유아부	주일 오전 11시
유초등부	주일 오전 9시
청소년부	주일 오전 9시
작은날개모임	목장별 정한 시간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강승진	장로 이성근 이승길
전도사 장효진 권요셉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으로 예일교회를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 Church

KT올레TV CH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예일교회)



마을버스

51번, 51-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 (역곡 남부역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 (역곡 남부, 괴안동 입구)

